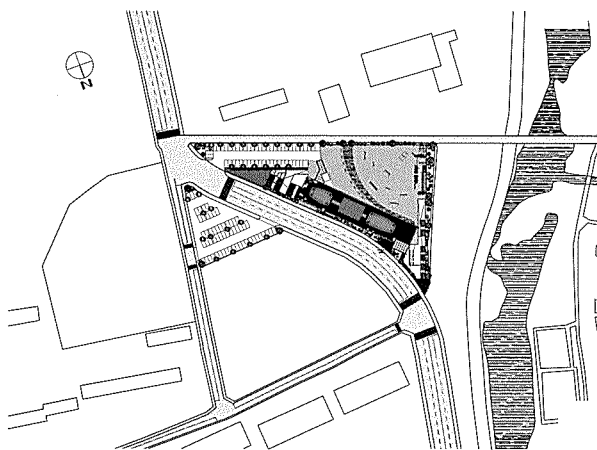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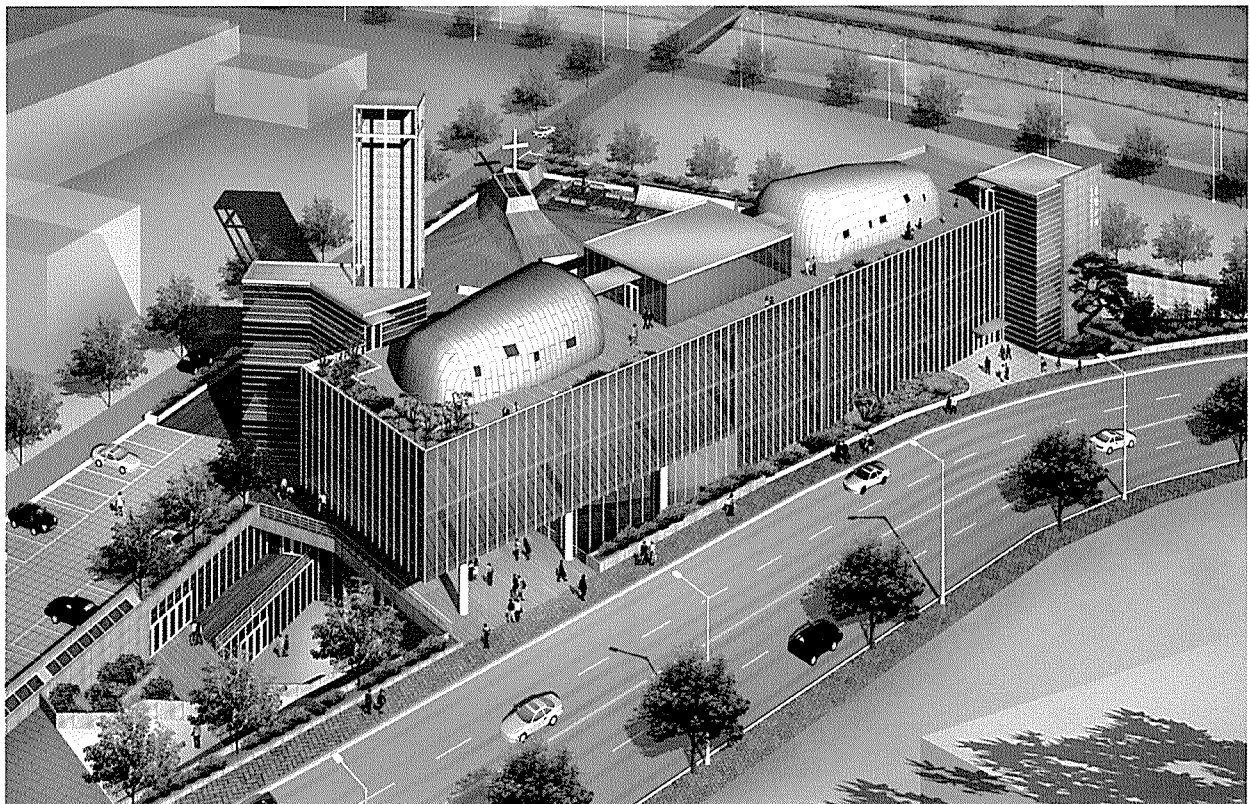


# 의정부 광명교회

## Kwangmyung Church

Design Note



배치도

### 프롤로그

2003년 6월 어느 날 쯤 일 것으로 생각한다. 시작이란 으레 그렇듯이 전화에 의한 것이 많다. 내용인즉 교회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안을 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복수의 계획안을 얻는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투였다. 그리고 응모에 대한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대지면적(7,440.76㎡)과 신축 연면적(3,000평 ~3,500평 이내)이 결코 적지 않음을 내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귀사무실이 교회설계 경험이 많음을 알고 있다고 공치사를 늘어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회신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지혜는 이미 건축사들에게 들은 사전지식으로 가득가득 차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알려줄 것이 없었다.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기법을 뽐치는 것이다. 대충 이 정도 되면 아예 뒷전으로 점잖게 물러났어야 옳았을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리고 러닝메이트가 누구인지도 알려주는데 그 중에는 이런 종류의 응모설계에서 가끔 마주치는 동료건축사도 끼어있어서 아예 허물없이 연락도 할 정도의 설계자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아마도 좋은 안을 선정해서 지으려나보다 라고 지레 짐작한 것이다. 모두 4개의 사무실이 응모한 것을 건축위원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개중 3개 사무실은 낮은 사무실들이었다. 다만 한 사무실 이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무실이라 잘 알던 동료건축사소장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나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계획안이라는 것을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그만 넓은 대지하며 많은 연면적의 프로젝트라는 것에 잠시 마취돼서 응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하나의 취약이 있었다. 우리만 따로 부르는 날짜에 가서 관련자들을 만나서 두 가지를 물었다. 첫째는 누구를 내정해놓고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정말 좋은 계획안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의정부시 입구 쪽에 가건물 식으로 급조된 듯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강단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배당 안의 열기도 제법 뜨거웠다. 그리고 건축위원장과 같이 방만한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혹시 목사님과 친척 되지 않느냐?" 담임목사의 이름을 들어보니 우연히도 돌아가신 삼촌이름과 같았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서인건축은 목사님이 직접 선정해서 응모자에 포함된 것이니 잘하시면 될 것입니다."하고 마취제 주사를 한 번 더 놓아준다. 이렇게 해서 일은 아주 수월하게 시작되었다.

허술하게 시작된 일이 응모기간도 비상식적으로 짧다. 2주의 기간을 줄 것이니 계획안을 제출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3주기간을 허락 받아서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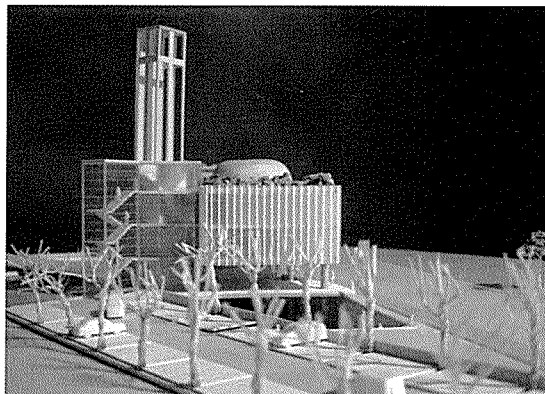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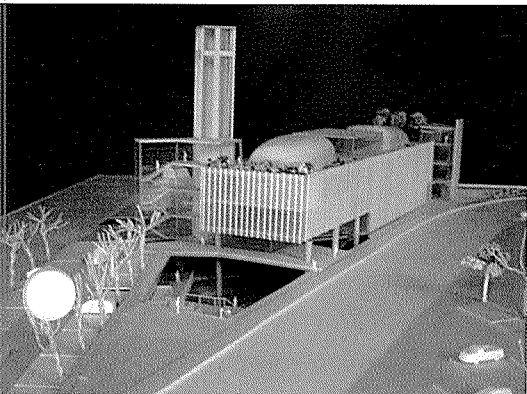
#### 계획착수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 때로는 나름대로 필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정신을 훈련하는데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일을 맡아서 느긋하게 처리하다보면 넉넉하게 맡은 기간동안 처리하는 것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촉박한 일들이 무식한 건축주 핑계로 마치 유격훈련 하듯이 강도 높은 생각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점도 있는 것이다.

#### 계획방법의 전환

그동안 필자는 대부분의 경우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치밀한 분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최근에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다보니 습관적으로 대한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Architectural Review나 Architectural Record나 더 Croquis책들이 배달되면 따끈따끈한 책의 온기가 식기 전에 즉 비닐커버를 뜯어내고 며칠간은 자세히 훑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멋진 계획안들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또 그런 종류의 건축을 만들어 내는 know-how를 알기 위한 열망은 꽤나 뜨거웠지만 그 비밀은 알아내지는 못했었다. 엘그로치 책을 보면 완성된 사진말고 한편에 작게 그려져 있는 다이어그램이나 스케치들이 있고, 그 밑에 아주 작게 쓰여져 있는 글씨들이 있다. 글씨가 돋보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크기라 대부분 그 부분을 열심히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필자도 이 부분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해외유학건축학도인 젊은 친구가 "그 작은 곳에 써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핵심입니다."그러는 것이었다. 돋보기를 그 작은 글씨에 갖다대며 자세히 읽어보았다. 아나니 다들 까? 그곳에 그 대단한 작품에 대한 프로세스가 밝혀져 있었다. 내심 기뻐다. 마치 비밀통로를 발견한 듯한 들뜬 기분으로 말이다. 필자는 즉시 의정부K교회 응모설계계획안 진행에 이런 방법을 채용해 보기로 하였다. 사실 60년대 말에 대학교건축과 수업 받고 70년대 초에 졸업한 건축가들이 제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건축가는 정말 내공이 대단한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 이야기를 돌려보자. 사람



의 병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도 매년 달라지는 의술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해이한 상태로 있다면 그 의사를 만나게 되는 환자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분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해 가는 건축기법이 사실 필자 생리에는 아주 잘 맞는 것 같다. 60년대 대학교 다닐 때 해외로 유학 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간 것이지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새롭음에 대한 갈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도 편하게 그동안의 인생경험과 또 새로운 건축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및 스케치 과정이 그대로 계획안으로 실현되었고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계획방법을 대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라 소개해본다. 분석을 통한 기법과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작업에 들어

갔을 때 그 끝 부분에 가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차이를 병에 걸린 환자가 대응하는 방법으로 설명해보자.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개인 병원에 간다. 몇 가지 증상을 물어보고 조치를 받는다. 그런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증세가 심해져야만 큰 병원에 간다. 그러면 개인병원에서는 하지 않았던 각종 검사를 받는다. 그런 후에 다른 병의 원인을 찾아낸다. 이렇게 필요 없는 듯이 보이는 분석을 통해 건축계획 진행방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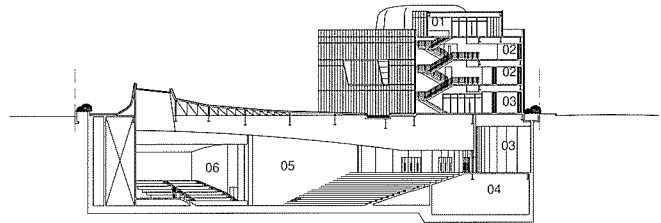
**결론**

앞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같이 추려내 보자. 설계의뢰를 단독으로 부탁 받았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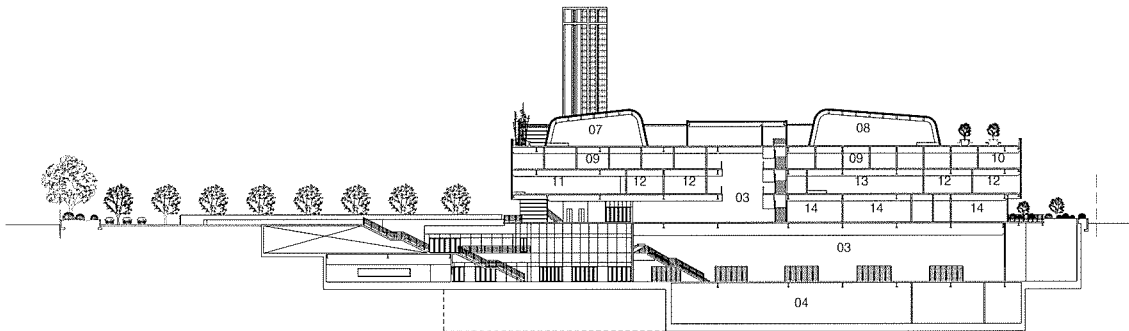
를 제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몇 개의 설계사무소가 응모했는지 공개적으로 알아본다. 응모사무실들이 지명도가 있는 사무실들이라면 일단 안심하되 혹시 그 중에 평소 알 수 없었던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주의 할 일이다. 3개 이상 혹은 5개 이상 선정해서 마치 설계 사무실을 닭장에서 장닭 잡듯이 싸구려 취급하는 듯한 건축주를 조심하라. 그 중에 선정적만 계약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 최대한 연합해서 보이콧하라. 그 부분을 인정 안하고 계속 못 주겠다고 하면 당선자설계비에서 지불하도록 만들어라. 어차피 여유 있는 설계비를 주지 못할 건축주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도 설득이 안 된다면 그런 건축주는 거의 도둑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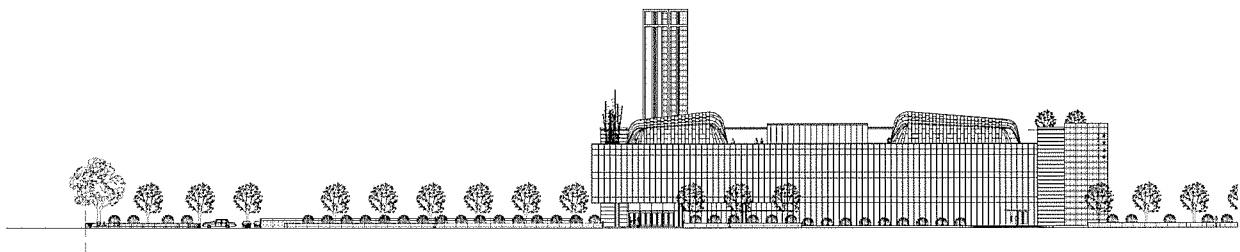
- 01\_ 친교실
- 02\_ 휴게공간
- 03\_ 홀
- 04\_ 기계실
- 05\_ 본당
- 06\_ 성가대
- 07\_ 목상실
- 08\_ 세미나실
- 09\_ 소그룹실
- 10\_ 당회장실
- 11\_ 성가연습실
- 12\_ 교육실
- 13\_ 콘서트홀
- 14\_ 사무실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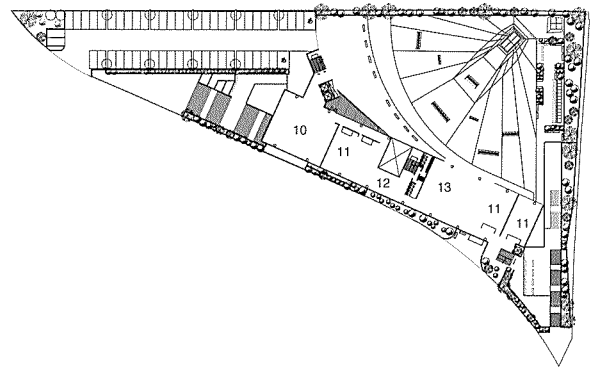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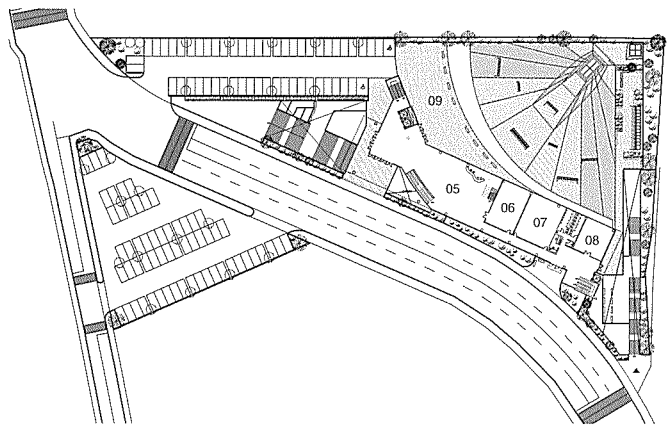
정면도

후기: 건축사지에 글을 쓰게 되면서 갑자기 생 각이 나서 예전의 전화번호로 건축위원장에게 그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나 확인해 보았다. 예상한 대로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사무실과 계약해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중도 계약 파기되고 지금은 건축위원장도 바뀌고 새 위원장과 다른 사무실이 선정돼서 3월중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평소에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던 3개 사무실이 들러리가 되어 생뿔을 한 셈이었다. 이 글을 읽는 사무실 중에 해당 일에 관련되었던 사무실이 필자와 다른 견해를 가졌었다면 그것은 그분의 몫 일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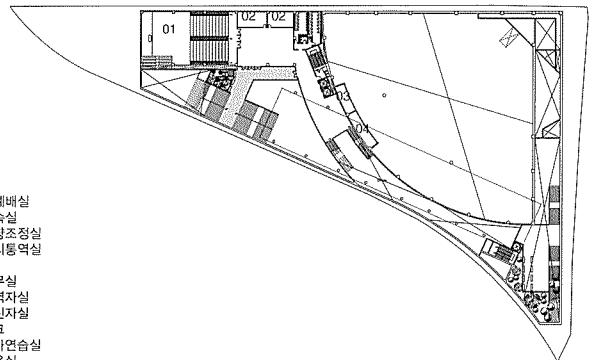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51-2외 4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7,440.76㎡  
 연 면 적 11,371.97㎡  
 건축면적 1,485.29㎡  
 건 폐 율 19.96%  
 용 적 률 61.11%  
 규 모 지하 3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복층유리 THK24, 노출콘크리트,  
 징크페인트, 동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_ 증배실
- 02\_ 부속실
- 03\_ 음향조정실
- 04\_ 동시통역실
- 05\_ 홀
- 06\_ 사무실
- 07\_ 교역자실
- 08\_ 세신자실
- 09\_ 데크
- 10\_ 심기연습실
- 11\_ 교육실
- 12\_ 휴게공간
- 13\_ 콘서트홀

지하 1층 평면도

